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ASEAN(아세안) 박람회 연설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Olivier Bailble** · 손지윤***

目次

1. 들어가는 말
2.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3.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수사학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말하는 사람의 에토스(Ethos), 말의 내용을 증명하는 로고스(Logos), 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파토스(Pathos)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¹⁾ 본고는 중국 국무원총리인 리커창(李克强)이 “중국-ASEAN(아세안) 박람회와 비즈니스 및 투자 정상회담” 10주년 개회연설에서 사용된 수사학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 5분법, 즉 착상(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암기(Memoria), 발표(Actio)의 영역으로 나누어 수사기술 및 수사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대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 한국외대 대학원 중어중문학 전공 박사과정

1) 양태종(2009:15)

1) 연구목적

수사학(修辭學, Rhetoric)이란 무엇인가? 고대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Marcus Fabius Quintilianus; A.D 35~95)의 견해에 따르면, 수사학은 ‘훌륭한(곧 효과적인, 아름다운) 말에 대한 재주 혹은 학문²⁾’이며, 여기서 ‘재주’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³⁾ 또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문장·사상·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수단의 선택 및 그 이용 수법을 연구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예술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 되었다.

이는 수사학이 갖고 있는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는’ 것에 있어,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동기를 제공해준다. 즉, 말하는 사람의 인격 및 태도인 에토스(Ethos)를 바탕으로 말의 내용을 증명하는 로고스(Logos)가 청중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는 파토스(Pathos)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수사 기술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공식적 성격이 강할수록, 국제적인 행사일수록,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는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구성된다.

수사학의 종류 중, 제의적 장르(Epideictic genre)는 각종 의식이나 축제, 행사의 시작과 끝,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행해지는 연설로, 어떤 이슈나 대상과 관련된 미덕을 칭송하거나, 잘못을 비난함으로 청중과 함께 합의된 제의를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⁴⁾. 본고의 “중국-ASEAN(아세안) 박람회와 비즈니스 및 투자 정상회담” 10주년 개회연설은 제의적 형식뿐 아니라, 정치적 형식도 갖추고 있다. 정치적 연설은 법정 연설, 식장 연설과 함께 고전 연설 장르에 속하는데, 고대 수사학 교본에 의하면 정치 연설은 청자에게 미래에 닥칠 일이 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⁵⁾

2) 양태종(2002:19,20)

3) 양태종(2009:12)

4) 박성희(2009:196)

5) 백미숙(2009:13)

본고의 개회 연설은 중국 국무원총리인 리커창(李克強)이 국가를 대표하여, 지난 10년간의 중국-ASEAN(아세안)의 업적을 치하하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함과 더불어 ASEAN(아세안)국가와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긴밀한 관계형성을 촉구함으로써 중국의 정책과 비전을 청자에게 제시 및 옹호를 부추기고 있다.

리커창(李克強)의 연설문은 단순한 내용전달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연사의 감정까지 진실성 있게 표현하도록 수사학을 사용 했다. 천왕따오(陳望道)는〈修辭學發凡〉에서 연설문은 말을 조정하여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는데 적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며, 北京師範大學의〈漢語講義〉에서는 언어를 잘 조정하고 수식하여 말과 글이 말하고 쓰여질 때 더욱 정확, 명백하여 생동감 있고 힘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⁶⁾고 했다.

본고는 중국의 국무원총리(國務院總理) 리커창(李克強)이 사용한 수사적 기술과 구성을 수사학적 방법론(rhetorical methodology)을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연설문의 가치와 전달력 및 영향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분석의 도구와 대상

본고는 2013년 9월3일 중국 광시(廣西) 난닝(南寧)에서 열렸던“중국-ASEAN(아세안)박람회와 비즈니스 및 투자 정상회담”(第十屆中國-東盟博覽會暨中國-東盟商務與投資峰會)(이하“중국-ASEAN(아세안)”) ⁷⁾의 전략적 관계10

6) 나민구(2001:72)

7) 2003년10월8일, 중국 국무원총리 원자바오는 제7차 중국과 ASEAN(아세안)(10+1) 지도자 회의에서 2004년부터 매해 중국난닝(中國南寧)에서 중국-ASEAN(아세안)박람회와 비즈니스 및 투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며 ASEAN(아세안) 10개국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출처:중국-박람회(<http://www.caexpo.org/>) ASEAN(아세안)국으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아세안))의 연합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84년), 베트남 (95년), 라오스(97년), 미얀마 (97년), 캄보디아 (99년) 이 가입되어 있으며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지역협력체로 발전하게 되었

주년을 기념하는 개막식의 연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연설자는 중국 총리인 리커창(李克強)이며, 연설문은 18단락 93문장, 4135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0분 동안 청자에게 전달하였다.

"중국-ASEAN(아세안)" 10주년 기념 식장연설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ASEAN(아세안) 연합국 외의 참여국가이자 개최국가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ASEAN(아세안)"의 전략적 관계를 체결한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국가서열 2위인 국무원총리 리커창(李克強)이 개막식 연설자로 단상에 섰다는 점이다. ASEAN(아세안) 연합국의 수장급 인사들이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참여한 행사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국제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진취적이며 개혁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리커창(李克強)이 대외적 행사에서 자국민이나 한 국가가 아닌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설이라는 점이다. 제의적이며 정치적인 자리에서의 이루어지는 개막식 연설은 중국과 ASEAN(아세안)의 미래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와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106~BC43)가 확립한 연설의 기본 영역인 '작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순서에 따라 분석했다. 작상에서는 리커창(李克強) 연설의 유형과 전반적 상황, 그리고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의도를 파악하고, 배열에서는 텍스트에 담긴 메시지, 논리구조와 구성 및 사용된 논술기법을 분석했다. 표현에서는 텍스트에 사용된 전통적인 수사법과 자주 사용된 단어 등 수사 기술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통해 리커창(李克強)이 중국-ASEAN(아세안)의 로고스를 어떤 태도로 어떤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하며 청자에게 파토스를 전달했으며, 청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다. 출처: 중국-ASEAN(아세안)센터 홈페이지(<http://www.ASEAN-china-center.org/zxgk/#>)

2.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텍스트를 수사학적으로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수사학의 전통적 5분법인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에 의거하여 고찰한다. 착상부분에는 수사적 상황, 연설자 및 청자, 연설의 종류, 말터 등의 하위 영역이 포함되며, 배열에는 연설의 짜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머리, 열거리, 버리, 마무리, 들머리에서의 호감사기, 이해 돕기 등의 원칙으로 전개 한다. 표현의 영역에서는 문체론, 문체원칙, 문체범주, 문체종류, 문체원칙으로서의 정확성, 명확성, 장식성, 적절성, 문체범주로서의 각종 형용법 또는 무늬, 문체종류로서의 이른바 3체론(단순체, 보통체, 숭고체)등을 다루고 있다. 암기 영역에서는 장소와 이미지로 구체화 하여 살펴보며, 발표 영역에서는 목소리, 몸짓, 표정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본고는 암기 영역을 제외한 4영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하고자 한다.⁸⁾

1) 착상

착상(Inventio)은 연설의 대상을 믿게 만드는 참이거나 참과 같은 논거를 찾아내는 것으로, ‘누가, 무엇을, 어디서, 무엇으로, 왜, 어떻게, 언제’의 경로로 나타내고 있다. 발화자의 생각을 담은 말터는 연설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늘려나가며 믿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고, 연설의 종류, 사람, 일, 장소, 수단, 이유, 방법, 시간 등의 말터에서 나온 논거들을 다룬다.⁹⁾

8) 양태중, 박성철(2003:22)암기는 연설의 내용과 형식을 저장하는 과정으로 “장소, 이미지, 순서”에의 저장을 의미한다. 본고의 화자인 리커창(李克强)은 (1)단락의 6문장을 제외한 대부분을 원고를 보고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암기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9) 양태중(2002:37-38)

(1) 수사적 상황

상황분석은 장르를 둘러싼 기본 요소들, 즉 해당 수사학이 발생한 시점, 수사학의 주체와 객체, 수사학을 가능케 한 사회적 상황과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 요구들에 대한 분석이다¹⁰⁾. 또한 수사학적 상황을 "실질적인 혹은 가능성 있는 어떤 긴급성(Exigence)을 보여주는 사건들, 사람들, 사물들, 관계들의 복합체"로 정의 될 수 있다.¹¹⁾

중국-ASEAN(아세안)박람회와 비즈니스 및 투자정상회담은 동남아시아연합 출범 후, 연합국 외의 국가인 중국과 함께 이루어낸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연합모임이다. 특히, 2013년은 중국-ASEAN(아세안) 비즈니스 및 투자 정상회담 창설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시간 각 국가의 교류와 합작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10개 ASEAN(아세안)연합국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국제사회에 지난 10년 동안 중국-ASEAN(아세안)이 협력하여 진행했던 일들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및 골드타임을 기념하는 자리이다. 또한 앞으로 더욱 긴밀한 상호협력과 중국-ASEAN(아세안)의 자유무역 구역의 성장을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빛나는 다이아몬드 타임을 열어나갈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중국-ASEAN(아세안)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¹²⁾ 이러한 상황 수사학적 담론이 상황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담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수사학을 생성해낸 것이다.

(2) 연설자 분석

화자의 역할은 말의 메시지를 지배하는 데 있으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목

10) 박성희(2001:224)

11) 박성희(2001:224)에서 Bitzer(1968) 재인용

12) 國與東盟國家領導人發表〈紀念中國—東盟建立戰略伙伴關係10周年聯合聲明〉高度贊譽中國—東盟博覽會, 출처: 중국-ASEAN(아세안)박람회 공식 사이트(<http://www.caexpo.org>)

회자, 사업가, 사회 운동가 등은 각 역할과 장소(연설취지)에 따라 독특한 화법을 사용한다. 이번 개막연설을 맡은 리커창(李克強)¹³⁾은 중국 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다음으로 입장해 공산당 서열 2위의 지도자임을 전세계에 각인시킨 인물로서, ‘사회보장주택’, ‘의료보험’, ‘민생’ 등 민생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¹⁴⁾을 해왔다. 또한 중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원굴기(中原崛起)’를 제창하고 하남성의 농업을 현대화시켜 소득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 외에도 ‘동북 진흥 계획’에 맞춰 3년 동안 빈민촌 개조사업을 실시 및 동북지역의 해외투자유치 등, 크고 작은 일을 진행시키며 명실상부한 차세대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국무원총리로 부임 후, 리커창(李克強)은 쉽고 진실성 있는 말로 인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해결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나라가 어지러우면 선량한 재상을 선호한다(世亂思良相)”란 말처럼 중국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고, 리커창(李克強)의 행보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홍칭(洪淸)¹⁵⁾은 리커창(李克強)의 정치적 인간적 성향을 분석한 책(李克強)에서 “리커창(李克強)은 제도와 팀워크를 중시하고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일시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언제나 실제에서 출발해 미래를 내다보고, 이론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실무적 통치 스타일을 견지하며 각종 난제를 해결하는 뛰어난 지략과 정확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술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커창(李克強)에 대해 “경제구조 불균형 해소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가 가진 에토스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작지 않음을 암시했다.

13) 리커창(李克強) 1955년 7월 안후이성 출신의 한족으로 현재 중국 국무원총리이다.

14)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2020년까지의 중국 목표이다. (全面建成小康社會, 是中國到2020年的發展目標.)” 출처: 영국(financial news)의〈中國同世界共成長〉

15) 홍칭(洪淸)(2013:206)

(3) 청자 분석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 중국은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불편한 국가이다. 중국의 소프트외교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2008년 일본외무성의 해외 여론조사¹⁶⁾에 의하면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 국가의 국민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중요한 협력동반 국가로서 일본보다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1978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결과이다.(MOFA2008) 이뿐 아니라 중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저개발국에 개발원조¹⁷⁾를 함으로 인프라 건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동남아 금융위기 당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모두 6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동원하여 동남아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 중국은 더 이상 “위협의 국가”가 아닌 “기회의 국가”로 반전되어 새로운 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번 “중국-ASEAN(아세안)박람회와 비즈니스 및 투자 정상회담”에 참가한 지도자들로써 미얀마 총리 Thein Sein, 캄보디아 수상 Hun Sen, 라오스 총리 Thongsing, 태국 총리 Yingluck Shinawatra, 베트남 총리 Nguyen Tan Dung, 싱가포르 부총리 Teo Chee Hean 등 총 10개국의 인사가 있고, 비즈니스계 및 정부기관 대표를 포함한 1100명의贵宾이 참석했다. ASEAN(아세안) 연합국 고위인사들의 참석이 갖는 의미는 “평화와 번영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서의 위치 재확인과 자국에 긍정적인 혜택 및 이익증진을 위한 회동으로 볼 수 있다.

16) 5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이 여론조사는 일본 외무성이 주관하고 있다. 줄곧 일본에 압도되던 중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사회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박사명 2011:217)

17) 1997년 이후, 중국은 120여 개 개발도상국과 30여 개의 국제기구에 경제 기술과 기부금을 공여하고 있으며, 원조액은 총GDP의 0.1%수준이다.(이희옥 2011:76)

(4) 연설유형 및 텍스트 의도

“중국-ASEAN(아세안)박람회와 비즈니스 및 투자 정상회담” 10주년 기념 연설의 텍스트 종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일까? 연설 텍스트 유형은 텍스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텍스트는 제의적 성격이 강한 식장연설이다. 식장연설(Epideiktische Gattung)에서는 연사가 자신의 관점에서 현재의 일이 명예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려 특정 대상에 칭찬을 하거나(Lob) 비난하는데(Tadel)¹⁸⁾, 리커창(李克強)의 연설문 전반에도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리커창(李克強)은 중국을 ASEAN(아세안) 연합국외의 첫 번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은 국가임을 나타냄과 함께 “中國-東盟(중국-아세안)”、“東方(동방)”、“我們(우리)”、“共同体(공동체)”등의 표현으로 수직적 주종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10주년이란 말을 15회 사용했는데, 반복을 통해 관계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부각시켰다. “枝繁叶茂、碩果累累(가지와 잎이 무성하며, 큰 과실이 주렁주렁 맺힌)”、“收穫果實(과실을 수확하다)”、“黃金十年(황금의 10년)”등의 긍정적 단어로 지난 10년간의 업적을 칭찬하며 수동적인 태도로 연설을 듣는 청중에 즐거움과 미래적 상황에 대한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부풀리기(Amplificatio) 및 과장법은 식장연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리커창(李克強)의 연설을 단순히 식장연설의 범주로 제한 할 수 없다. 그의 연설이 정치연설의 요소, 즉 득과 실을 따져 특정한 방향으로 결정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연설(Deliberative Gattung)은 미래의 정치적 결정을 앞둔 집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로부터 예상되는 득과 실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 연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⁹⁾. 또한 정치연설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철학

18) 박상철(2004:352)

이나 정치이념 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목표와 중요한 정책 결정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설득시키는 중요한 선전수단이라고 했다. 20) 리커창(李克強)은 상황과 동기 면에서 “중국-ASEAN(아세안)의 박람회 및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담의 10주년”이라는 큰 제의적인 틀 안에서 행사를 축하하며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긍정적 면모를 칭찬하고 미래의 상황에 대한 희망적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ASEAN(아세안)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아시아의 번영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어떤 정책과 방법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제의를 역사적 당위성과 이해득실을 따져 제시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상황과 동기면에서 리커창(李克強)의 연설은 식장연설의 특징인 과거의 일들에 대한 칭찬과 함께 주제와 논지전개에서 앞으로의 중국과 ASEAN(아세안)의 관계 청사진 제시 및 관계 심화의 당위성의 정치연설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5) 논거 찾기

논거는 신뢰 획득에 적합하도록, 신빙성 있게 고안된 생각으로, 모든 연설은 발화과정을 거지치기 전 반드시 그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強)의 개막식 연설문은 중국-ASEAN(아세안)의 10주년 행사를 축하하는 제의적 성격과 중국과 ASEAN(아세안)의 관계강조 및 향후 비전제시를 위해, 식장에 참여한 청중에 대한 칭찬과 사회적 가치 및 정치적 가치, 방향성 제시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행사에 참여한 ASEAN(아세안)연합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칭찬 및 부추김과 함께 현재 중국이 직면한 남해문제(4문단, 5문단)에 대한 중국의

19) 박상철(2004:353)

20) 백미숙(2009:13)

입장을 표명해줌으로 불안을 해소시키고, 또한 함께 추구해야 할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6단락~9단락) 및 중국과 ASEAN(아세안)의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10단락~15단락)을 중국 정부의 입장과 ASEAN(아세안)연합국의 입장을 고려한 논거를 찾고 그에 따른 전개를 펼쳐나가고 있다. 중국-ASEAN(아세안)의 전략적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 ASEAN(아세안)의 다섯 가지 미래지향점에 대한 제의(10단락~15단락)를 통해 연사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려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위치와 ASEAN(아세안)연합국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제의와 더불어 전세계적 과제인 “화평”과 “발전”이라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연합국에 상기 시킴을 통해, 현 중국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연설자의 논거는 착상의 근원이 되며 연설의 핵심 부분에 명확히 드러난다.

2) 배열

배열(Dispositio)은 착상된 논거들의 순서, 즉 연설의 구조에 따른 효과적으로 논거를 정렬 하는 재주로 논거를 정렬하는 관점은 착상에서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배열에서는 들머리, 다시 말해 연설의 시작부분으로 청자/독자의 관심을 끌고, 이해를 도우며, 호감을 사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 후, 상황을 간결하고 명확하고 신빙성 있게 전체 윤곽을 잡는 열거리를 배치하며, 연설가가 기대하는 효과의도에 따른 밝히기를 진행한다.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는 전반적인 연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되풀이하고 동정심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호소한다.²¹⁾

리커창(李克强)의 연설문은 총18단락 97문장, 4135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0분 동안 “들머리(22문장)-열거리(23문장)-밝히기(26문장)-결론 및 맺음말(20문장)”의 구성순서로 청자에게 전달되었다. 다음 표는 리커창(李克强)의 연설문을 배열구조에 따라 요약한 것이다.

21) 양태종(2002:44-15)

<표 1>

배열구조	단락	문장	요 약
들머 리 (22문장)	1	(1)-(6)	인사말: 행사 10주년을 기념
	2	(7)-(10)	ASEAN(아세안)에 대한 운명공동체로서의 중국입장
	3	(11)-(14)	중국-ASEAN(아세안)의 10년 역사 조명(운명공동체)
	4	(15)-(19)	중국-ASEAN(아세안) 운명공동체의 불안요소 해명(남해논쟁)
	5	(20)-(23)	남해논쟁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
얼거 리 (23문장)	6	(24)-(29)	국제형세의 변화와 긍정적 부정적 요소
	7	(30)-(36)	중국-ASEAN(아세안)의 추구해야 할 목표제시: “발전”
	8	(37)-(40)	지난 10년의 발전회고 및 중국-ASEAN(아세안) 관계
	9	(41)-(46)	향후 10년에 대한 5가지 구체적 협력 방안 제시
밝히 기 (26문장)	10	(47)-(53)	첫 번째, 자유 무역 구역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시
	11	(54)	
	12	(55)-(59)	두 번째, 상호간 네트워크 추진에 대한 제시
	13	(60)-(64)	세 번째, 금융 협력의 강화에 대한 제시
	14	(65)-(69)	네 번째, 해상 협력 전개에 대한 제시
	15	(70)-(77)	다섯 번째, 인문 교류 증진에 대한 제시
결론 및 맺음 말 (20문장)	16	(78)-(89)	중국의 경제상황 국가저력 소개
	17	(90)-(94)	중국-ASEAN(아세안) 관계지속의 당위성과 미래 비전 제시
	18	(95)-(97)	이번 행사의 성공기원

(1) 들머리

들머리는 연설을 시작하며 청중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부분으로, 양태중²²⁾은 몇 권의 저명 수사학자들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들머리는 연설, 곧 이야기의 시작이다. 둘째, 청중들을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만들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들머리란 이야기의 시작으로

22) 양태중(1993:103,104)

서, 청중이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도록 하는 곳으로, 들머리의 목적은 사안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에 관한 연설인지를 알려주어 논거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권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안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청중을 준비시키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들머리의 원칙에는 청중의 ‘호감사기’, ‘관심끌기’, ‘이해돕기’ 등²³⁾이 있으며, 1단락~5단락이 들머리에 해당된다.

연설은 1문장과 같이 청중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호칭은 연설의 첫 부분이나 중간에 등장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연사에 관심을 돌려 집중하기 위함이다. 또한, 청중을 부름으로서 연사는 말할 권리가 있음을 청중은 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연설을 지속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²⁴⁾. 특히, 일반적인“女士們(숙녀 여러분)”, “先生們(신사 여러분)”이란 호칭 외에도 “朋友們(친구 여러분)”이란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ASEAN(아세안)연합국에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문장과 3문장에서“東方(동방)”이라는 중국과 ASEAN(아세안)을 아우르는 호칭을 사용하고 “十年一大慶(10년은 큰 경사)”, “一年樹木、十年樹木(나무가 큰 나무가 되다)”등의 외부 말터로 사용하여 청중의 관심 끌기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收穫果實(과실을 수확하다)”, “枝繁叶茂、碩果累累(가지와 잎이 무성하며, 큰 과실이 주렁주렁 맺힌)” (4문장)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중국과 ASEAN(아세안)의 협력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문단과 3문단에서는 연설자인 리커창(李克强)이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ASEAN(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태도를 삼단논법을 사용하여 표명함(8문장, 9문장)으로 다시 한 번, 중국과 ASEAN(아세안)의 관계를 강조하며 호감사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ASEAN(아세안)을 한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리적, 문화적, 혈통적으로 설명(10문장, 12문장, 13문

23) 이범수(2006:198)

24) 백미숙(2002:262)

장)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추구해야 할 과제인 “화평”과 “발전”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면모를 밝히며 ASEAN(아세안)이 첫 번째로 맺은 자유 무역 구역의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스스로를 “대국(大國)”이라 부르며 ASEAN(아세안)에게 묵시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며, 중국과 손잡은 ASEAN(아세안)연합국을 “尊重(존중)”, “平等(평등)”, “和諧(화목)”, “公益(공익)”이라는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그들 역시 대국인 중국과 동등한 위치의 운명공동체임을 치켜세우고 있다.

리커창(李克強)은 한 편으로 ASEAN(아세안)연합국과의 심화된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언급도 두 단락(4단락, 5단락)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남해 논쟁에 대한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주장 및 근거(15문장, 17문장, 18문장)와 ASEAN(아세안)연합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부의 약속을 “担当(감당하다)”, “保障(보장하다)”, “負責(책임지다)”, “堅定(결연하다)”, “堅持(견지하다)”등의 긍정적이고 단호한 어감의 단어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문제인 “남해논쟁”이 ASEAN(아세안)연합국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강조하며, 중국과 ASEAN(아세안)의 관계에 대해서도 변함없음을 “국가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포”, “장기적 전략”이라는 단어를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청자의 호감 및 신뢰 얻기와 대국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들 내용이 중요하거나, 새로운 것이거나 놀라운 것이거나 공동의 관심사 일수록 청중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다²⁵⁾고 말했는데, 앞서 1문단을 통해 리커창(李克強)은 ASEAN(아세안)연합국의 내빈에 대한 친근한 호칭으로 호감을 사고, 동양의 정서에 상응하는 외부 말터를 인용하여 이번 행사의 10주년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2문단과 3문단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세계 과제의 일치를 통해 대의명분을 제공하고 한 운명공동체임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요소인 “남해논쟁”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책임을 갖고(中國政府是有担当的)”와 “우호적 협상(友好協商)”, “현명하게

25) 양태종(1993:114,115)

해결(妥善解决)”을 취할 것으로 안심시키고 있다.

(2) 얼거리

얼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연사가 청중에게 알리는 부분이며 동시에 이야기 하고자 하는 대략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단계이다. 요약된 연설 내용이 삽입된 부분으로서 간결성과 명확성, 신빙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리커창(李克强) 연설 텍스트의 얼거리는 총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단락에서부터 9단락까지이며, 중국과 ASEAN(아세안)연합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가치를 대내외적 관점에서 진단해보고 (6단락, 7단락)와 지난 10년 동안 발전과 중국과-ASEAN(아세안)의 관계를 회고하고 향후 10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8단락, 9단락)하고 있다.

6문단에서는 대외적인 관점에서 본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24문장, 25문장) 국제 정세의 불안정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26문장, 27문장), 이를 돌파할 방안이 “발전”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7문단에서는 대내적인 관점으로 현재 ASEAN(아세안)의 국제 사회에서의 비중과 잠재력을 평가하고 (29문장), 각 나라가 지닌 막중한 민생개선의 책임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 평가하고(30문장~32문장), 추구해야 할 미래가치를 논하고 있다. (33문장~35문장)

연사인 리커창(李克强)은 현재의 국제 정세가 놓여진 어려운 상황에 따른 ASEAN(아세안)의 처지를 자세하게 언급함과 동시에 이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짚어줌과 동시에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 줌으로 ASEAN(아세안)연합국의 지도자들에게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이해하는 통찰력 있는 대국으로, 난제를 함께 헤쳐나갈 친구로서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26) 이범수, 김민영(2006:199)

8단락(36문장~39문장)과 9단락(40문장~45문장)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인 이들의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이야기 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強)은 중국과 ASEAN(아세안)의 과거를“黃金十年”(황금의 10년)으로 회고하며(36문장~39문장), 무역, 투자, 경제의 영역에서의 성과를 객관적 현재상태를 정리하며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40문장~42문장) 또한 앞으로의 10년을 “鑽石十年”(다이아몬드의 10년)으로 제시하며 공동의 발전목표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충분함을 강조하고(43문장), 현재 중국과 ASEAN(아세안)의 관계가 “정치적 믿음(政治互信)”과 “개방포용선도(倡導開放包容)”의 기초 위에 심화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44문장) 이러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 구체적인 중국과 ASEAN(아세안) 협력방안을 뒤이어 밝힘을 또한 예고하고 있다. (45문장)

이상의 얼거리에서는 전반적인 세계 흐름과 현재의 ASEAN(아세안)의 사회적 상황을 들어 그들의 이익과 관계되는 큰 지도를 펼쳐놓고, 중국과 ASEAN(아세안)의 관계를 과거 10년을 돌아봄으로 신빙성을 더하여 청자의 동의 및 관심을 이끌어 내고, 성공적인 미래의 10년을 현재 중국과 ASEAN(아세안)의 신뢰와 교류, 공동의식의 심화를 통해 이루어야 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3) 밝히기

어떤 말 혹은 이야기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특히, 정치적 성격의 말은 그 내용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야기의 전달 효과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신빙성을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밝히기란 자신의 입장이거나 주장을 증명해 보이거나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야기로 자기주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부분이다. 밝히기는 ‘증명의 형식’과 ‘타당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결국 개연성을 얼마나 밝히는가가 잘 쓴 밝히기의 관건이 된다.²⁷⁾

27) 이범수, 김민영(2006:198)

증명의 형식에 있어서 정치 연설문은 수사재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교적 밝히기가 주로 사용되는데, 기교적 밝히기는 논리학의 방법론을 빌린 증명법으로 수사적 삼단논법(논증법)과 수사적 귀납법(예증법), 표증법이 있다.²⁸⁾

논증법은 삼단논법 중에서도 특히 생략삼단논법을 본받아 수사학에 적용된 증명법이다. 즉, 참일 것 같은 또는 믿을 만한 전제를 이용하는 한편, 청자가 쉽게 보충해서 들을 수 있는 전제를 생략하여 증명하는 방법으로 "수사적 삼단논법"이라고도 한다. 표증법은 벌어진 혹은 벌어질 일을 짐작하게 해주는 표시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방법인데, 표시 자체는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기교적 수단과 닮았으나, 이 표시와 다룰 일과의 연관성이 먼저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교적 수단에 속한다는 사이에 있는 특수한 논증방식이다. 표증법에서는 다룰 사안과 표시와의 연관성이 먼저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인식 과정을 거치면 표시는 이른바 믿을만한 전제의 구실을 하게 된다. 각 단락에서 리커창(李克强)이 사용한 기교적 밝히기는 논증법과 표증법이다. 10문단부터 15문단까지 총 다섯 가지 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각각의 논거에 대해, 청자가 믿을 만한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논거1의 전제: (48)문장- 쌍방의 무역관계 발전

(50)문장- 자유무역구역 협정의 내용과 범위 확대

(53)문장- 외부 투자 확대

논거3의 전제: (61)문장- 금융협력의 경제안정성보장

논거4의 전제: (66)문장- 해상협력 전개

논거5의 전제: (75)문장- ASEAN(아세안)은 중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

이상 다섯 가지 전제에 대한 증명으로 한 문장에서 두 문장으로 신빙성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일어날 일을 표증법을 사용한 문장을 전제와 증명 앞뒤에 배치하여 청자에게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밝히기 부분에 사용된 기교적 밝히기는 "표증후 논증하기, 논증 후 표증하기,

28) 밝히기의 논증 구조에 대하여 양태중(1996:103) 참조.

표증법으로만 설명하기, 논증법으로만 설명하기”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의 <표>2 는 밝히기 부분에서 사용된 수사재주(기교적 밝히기)이다.

<표 2>

단락 (문장)	요 약	기교적 밝히기 (문장)	
10단락 (47)-(53)	논거1: (47) 자유무역 구역을 업그레이드 하자.	표증법	(49) (52)
11단락 (54)		논증법	전제: (48), (50), (53) 증명: (49), (51), (54)
12단락 (55)-(59)	논거2: (55) 상호간 네트워크를 추진하자.	표증법	(56)-(59)
13단락 (60)-(64)	논거3: (60) 금융 협력을 강화하자.	논증법	전제: (61) 증명: (62)
		표증법	(63)-(64)
14단락 (65)-(69)	논거4: (65) 해상 협력을 전개하자.	논증법	전제: (66) 증명: (67)-(69)
15단락 (70)-(77)	논거5: (70) 인문 교류를 증진 시키자.	표증법	(71)-(74)
		논증법	전제: (75) 증명: (76)-(77)

리커창(李克強)의 연설문에서는 6개의 단락을 할애하여 각 단락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자신의 제의에 대한 신빙성을 기교적 밝히기인 논증법, 표증법을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 연관성 있게 전개함으로 청자의 환심과 동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했다.

(4) 결론(마무리)

이야기를 끝내는 부분인 마무리는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으로 연설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언급함으로써 청중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마무리)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만 반복해야 하며,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표현을 사용해야 함이 바람직하다²⁹⁾. 아낙시메네스 (Anaximenes: BC 585 ~ BC 525),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106~BC43), 퀸틸리아누스(Marcus Fabius Quintilianus: 35~100) 등 수사학의 대가들은 마무리에서 설득을 노리는 수단들이 총동원되는데, 비교하여 길이를 늘리거나, 질문, 반어법, 인물을 끌어들이는 수법 등을 사용하여 변화 있게 열거하거나 제안의 형태를 띠거나 증명의 약속을 이행하는 표현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무리에서는 전체 이야기를 열거, 제안, 질문, 반어법, 비교, 끌어오기 등의 수단을사용 하여 요약하는데 리커창(李克強)은 마무리부분에 해당하는 16문단에서 중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노력 및 성과(79~82문장)와 앞으로의 전망(83~85문장)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 직면할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86문장, 87문장)를 통해 ASEAN(아세안)연합국과의 관계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88문장) 이어서 17문단, 18문단에서는 2000년 전의 “해상실크로드”의 역사를 끌어와 중국과 ASEAN(아세안)의 강한 유대감을 표현함(89문장)과 동시 “중국-ASEAN(아세안)박람회와 비즈니스 및 투자정상회담”의 10주년의 의미와 중국과 ASEAN(아세안)의 발전, 번영, 화평을 제안, 기원하고 있다. 이상의 수단들은 청자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전해지는데, 첫째는 이성애 호소하는 것으로서, 이는 청자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명과 그 전제, 그러니까 열거리부터 밝히기까지 사용된 내용을 간결하고 재빨리 추리는 것이 중요한데, 리커창(李克強)은 중국의 상황을 설명함으로 밝히기 부분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제안을 암시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했다. 둘째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청자에게 마지막까지 호감을 사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연설문에서도 역사적 동행(89문장)이나 행사에 대한 의미 부여(90~93문장) 및 축

29) 양태종(1997:174)

하의 말(94~96문장)로 청자의 파토스를 자극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 표현

연설에 있어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만큼 중요한 것이 표현(Elocutio)인데, 어떤 어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 것 및 어떤 수사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청자에게 전달 되는 텍스트의 영향력이 좌우된다.

(1) 어휘선택

표현력은 어휘선택과 어휘연결에 적용된다. 어휘선택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 어휘들을 사용하게 되면 설득의 힘이 더 높아진다. 이를 테면, 다른 어휘보다 더 낭랑하고, 웅장하고, 부드럽고, 더 찬란한 어휘를 쓰는 경우나, 신조어나 고어, 은유, 환유, 남유, 아이러니, 과장, 강조를 위해 어휘들이 사용될 경우가 그러하다.

공통적 가치와 국가의 이상에 호소하는 연설은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생각을 촉구하여 통합을 유도하는데³⁰⁾, 리커창(李克強)은 이번 연설문에서 중국과 ASEAN(아세안)에 대하여 중국 72회, ASEAN(아세안) 62회,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13회씩 언급하며, 두 집단의 관계를 정의했다. 들머리에서는 ASEAN(아세안)에게 책임감을 갖고 두 집단의 관계를 지켜나갈 것임을 책임감 있는 단어(担当、保障、負責)의 사용과 고정격식(堅定、支持)사용의 반복((20)문장-(21)문장)으로 나타내고 있다. 열거리와 밝히기에서는 리커창(李克強)이 가진 개혁정신이 다섯 가지 협력 방안에서 발전(30회), 경제(22회), 번영과 안정(12회) 단어로 표현되며 ASEAN(아세안)에 동의를 설득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단어(將來、未來)를 10회 이상 사용했으며, 협력에 대

30) 박성희(2009:209)

한 이야기도 30회 언급하며 서로의 관계 및 지향할 목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2) 수사법

리커창(李克强)의 연설에는 중국 고유의 수사법이 사용되었다. 첫째로 리커창(李克强)은 비유법을 사용하여 중국과 ASEAN(아세안)의 지난 업적을 “十年樹木”, “黃金十年”, “鑽石十年”로 비유했다. 중국에서 사용되던 비유법은 설명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 수사법은 다른 사물과 관련하여 어떤 사물을 인식 또는 이해하여 비교를 강조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¹⁾. 둘째, “与鄰爲善、以鄰爲伴”(~으로~하다)와 같이 일정한 격식으로 문장을 표현하거나 10문장의 “地理相鄰, 文化相通, 血脉相親, 利益相融”, 12문장의 “相互尊重、平等相待、睦鄰友好、互利共贏” 같은 동일 글자수 반복, 배비 및 반복을 사용하여 연설에 운율감을 주어 연사의 전달 능력을 높여 주고 청자에게 심미적으로 수용하도록 돕고 있다. .

4) 발표

발표(Actio)는 착상, 배열, 표현, 기억에 이어 나오는 마지막 과정으로서, 텍스트를 목소리, 표정, 몸짓으로 구현하는 “연설가의 실천”이다³²⁾. 리커창(李克强)의 연설은 대외적인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정치적인 성격을 지녔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청자에 대한 호감사기와 청자설득의 연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연설의 유형적 특징에 따른 발표는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의 연설은 참여한 청중에 대한 칭찬과 호감사기의 제의적

31) 나민구(2006:55)

32) 양태종(2002:52), 양태종(2009:241)

특징과 함께 청중을 설득하는 정치적인 특징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연설의 특징에 부합하는 복장과 목소리의 빠르기와 높낮이, 휴지, 표정과 제스처를 함으로 연설에 대한 청중의 관심과 신뢰 그리고 설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1) 언어적 요소

리커창(李克強)은 안후이성(安徽省) 사람으로 표준어인 북방발음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설에서 나타나는 그의 말투에서 표준발음 및 성조를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번 연설의 대상이 국내가 아닌 국제의 인사들이 핵심이지만 장내에 있는 내국인을 의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목소리가 연사의 호감도와 공신력을 좌우하기도 하는데, 음색이 풍부하고 톤이 높으며 느린 속도에 휴지가 정상인 경우 연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감안하여 본다면, 묵직하지만 중후하지 않으면서, 무겁지 않은 톤의 목소리에서 친근감과 안정감, 그리고 신뢰감을 준다. 안정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던 리커창(李克強)은 청중을 향한 중국의 협력제안을 전개할 때에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힘주어 이야기 함으로 연설의 무게를 실으며 정치연설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목소리 빠르기에 있어서는 다국적 손님을 의식하는 듯, 다른 곳에서의 연설보다 느리고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있다. 인사말을 전할 때에는 청중을 둘러보며 한 단어 한 단어를 세심하게 발음하면서 빠르기를 조절하고, 밝히기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힘차고 리듬감 있는 속도로 전하고 있다. 이는 밝히기 부분의 텍스트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수사법인 배비, 반복, 대구 등의 기술이 사용됨에 따른 것으로, 리듬감 있는 빠르기로 그 전달 효과를 높이하고자 함이다. 중국의 언어적 특성인 성조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성조 중, 이성을 말할 때는 상승음을 길게 늘어 뜨려 말하며, 사성을 말할 때는 강하고 또렷한 어조로 표현되며 청자에게 연사의 감정과 생각을 전한다. 또한 연설

의 중간 중간 휴지를 둠으로 주위를 환기 시키고 연설을 재정비 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목소리가 음색이 풍부하고 휴지가 정상일 경우 연사의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러한 언어적 요소는 비언어적 요소와 함께 어울어져 그 효과를 높인다.

(2) 비언어적 요소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는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일치하지 않을 때, 청중은 비언어적 요소를 더 진실하게 받아 들이는 경향이 강한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메리 비안(Albert Mehrabian)은 상대방에게 내용을 이해시키거나,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가 판정하는데 있어, 목소리는 38%, 표정 30%, 태도 20%, 몸짓 5%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말의 내용이나 어휘는 7%의 비중을 차지함을 밝혀냈다.

연설자가 가진 목소리, 말의 빠르기, 제스처의 적절한 사용, 청중을 향한 시선처리 및 표정 등에 연설문의 전달력이 결정된다.

제의적인 형식에서 진행된 연설은 약 1100여명의 청중이 착석한 자리에서 사회자가 연설자인 리커창(李克强)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사회자의 선포에 가까운 소개는 청중들로 하여금 연설의 시작과 들을 준비를 시키며, 진취적이고 웅장한 팡파레 음악은 연단으로 나아오는 리커창(李克强)이 지닌 에토스를 느끼게 해준다. 깔끔한 양복차림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중국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단상에 오른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여 참여했음을 암시하며 청자에게 존중의 마음과 경청의 태도를 이끌어 낸다. 사회자의 소개 후, 리커창(李克强)이 연단에 오르기까지는 약 40초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연단 앞 줄 ASEAN(아세안) 국가의 고위 관계자와 함께 앉아 있다 사회자의 소개와 음악의 시작과 동시 중앙으로부터 기립하여 오른쪽으로 큰 걸음으로 나아온다. 단상 앞에 선 리커창(李克强)

強)은 2~3초 동안 청중이 앉아 있는 곳을 향하여 자연스러운 아이컨택을 시도한 후, 인사말을 건넨다. 리커창(李克強)은 다른 중국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제스처의 사용이 풍부한 인물로, 인사말을 전하면서부터 연설을 마칠 때까지 과도하지 않게 양손으로 자신의 연설을 보조하고 있다. 중국과 ASEAN(아세안)과의 관계를 이야기 할 때, 중국이 ASEAN(아세안)을 향하여 다섯 가지 협력 제안을 하는 시점 중 강조하는 부분에서 절도 있게 한 손 혹은 손가락을 사용하여 그리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서양의 연사와 같이 많은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양의 연사와 비교해 보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커창(李克強)의 제스처의 동선은 가슴 높이 이하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가슴 높이에서 어깨 높이에서 볼 수 있는 서양의 연사와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난다. 동양의 정서에 있어 서양식 연설에 사용되는 과장된 제스처의 사용이 오히려 청자에게 반감이나 산만함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부분으로 보인다. 절제된 제스처에서 오는 표현의 제약은 얼굴 표정을 통해 보완 하고 있다. 단상에서 청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는 모습에서는 스스로를 대국(大國)이라 부르며 형님의 이미지를 풍기는 권세자의 권위와 함께, ASEAN(아세안)의 발전을 함께 고뇌하는 친구의 모습을 담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ASEAN(아세안)의 발전의 필요성과 협력 제안을 피력할 때는 강한 눈빛으로 본인의 에토스를 청자에게 드러낸다. 그 외에도 연설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고갯짓을 하며 손이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한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색으로 인식되는 빨간 넥타이를 맨 복장과 등장할 때의 동작 및 동선, 참석한 내빈을 연설 중 적절히 바라보는 시선과 제스처의 시각적 요소를 사용한 에토스를 드러냄과 동시, 평온한 음성과 함께 정중한 말씨로 청자에 대한 존중과 환영을 드러내다가도 ASEAN(아세안)연합국에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여러 가지 제의를 할 때에는 중국 특유의 배비와 반복의 수사법을 구사하며 로고스를 전달하고, 목소리의 높낮이와 강세를 조절하며 청자의 파토스를 자극하여 연설의 효과를 높였다.

3. 나오는 말

본고에서 다룬 중국과 ASEAN(아세안)비즈니스 및 투자 정상회담 개최 10주년의 개회연설은 제의적 식장연설의 성격과 함께, ASEAN(아세안)연합국 지도자들이 모인 대외적 정치연설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런 자리에서의 연설은 주어진 텍스트를 바탕으로 많은 청중 앞에서 일방적으로 국가의 입장이나 주장을 담화로 전달하는 공식적인 대중 의사소통의 한 형식으로, 청자에 대한 칭찬과 호감을 유도하는 감정호소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목적인 정치적 요소들을 피력하여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본고에서 다룬 개회연설문은 이상의 제의적 정치적 요소를 두루 갖추었을 뿐 아니라, 과거를 회고하고 칭찬 및 축하 등의 정감 있는 내용과 더불어, 미래 상황을 제시하며 제안하는 중요 정책이나 특정 사안을 보고하고 설득하는 내용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 착상과 배열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발전’이라는 성향을 가진 리커창(李克强)이라는 강력한 에토스를 가진 연사가 단상에 올랐다는 것은 연설문의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리커창(李克强)이 연설에 사용한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있어서도 식장연설이나 정치연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으로 진행됐다.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는 생동감 있고 명료한 표현을 “운명공동체”, “우리”라는 친근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의 호감을 얻었으며, 행사 취지에 알맞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을 “배비”, “반복”, “인용”등의 중국 특유의 수사법에 담아냈다. 또한 다국적 청자를 배려한 어휘 선택과 격언 선택을 하였다. 리커창(李克强)은 연설문에서 동방 나라에서 통용되는 말과 중국 격언을 적절하게 섞어 씀으로 듣는 이들의 정서를 고려하고 친근함을 이끌어 냈다. 비언어적 표현에 있어서는 적절한 톤의 목소리로 연설의 흐름에 따른 강약 조절 및 청자들의 이해 및 수용을 감안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설 내용에 맞는 속도와 더불어 손짓이나 몸짓을 사용함으로 청자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타이밍에 휴지를 두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등의 행동으로 주위를 환기시키고 청

자로 하여금 연설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연사의 말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에토스가 가진 품위와 신뢰도는 로고스를 통해 발현되는 텍스트의 논리와 수사적 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더불어 청자의 마음을 흔드는 파토스로,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參考文獻

- 권영민 (2002), 『한국현대문학대사전』, 민음사
- 나민구 (2001), 「수사학과 중국어교육」, 『중국학연구』20권
- 박사명 (2011), 「중국의 영향과 동남아의 대응: 상호적 접근시각」, 『동남아
시아연구』 21권 2호
- 박상철 (2004), 「외교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연설유형론과 착상영역을 중
심으로」, 『독일문학』89권
- 박성희 외2명 (2013), 「수사적 상황과 역할에 따른 대통령 수사학 장르분
석」, 『수사학』19
- _____ (2001), 「공론(公論)으로서의 사과문(apologia)의 수사학적 상황 비
교분석」, 『사회과학연구논총』7권
- _____ (2009), 「대통령 취임 연설의 제의적(Epideictic)특성 수사 분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연설문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 백미숙 (2002), 「연설문의 들머리와 마무리 구조 분석」, 『독어학』5
- 송종길 (2002), 「2002년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나타난 수사학적
토론전략 연구」, 『한국언론학보』 48(2)
- 양태중 (1993), 「들머리 만들기」, 『독일학연구』9
- _____ (1997), 「마무리(peroratio)에 대하여」, 『독일학연구』13
- _____ (2002),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도서출판 동인
- _____ (2009), 『수사학이 있다』, 유로서적
- 이범수, 김민영 (2006), 「연설텍스트의 수사적 체계 분석」, 『수사학』 4
- 이상섭 (2009),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 이상훈 (2011), 「연설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호감도」, 석사논문
- 이희옥 (2011), 「중국을 보는 또 다른 눈, 중국이 보는 또 다른 눈: 동남아를
보는 중국의 눈」, 『동아시아 브리프』6권 2호
- 홍청(洪淸) (2013), 『리커창(李克强)- 중국 대륙 경제의 조타수』, 푸른역사

Abstract

Rhetoric Analysis of Speech Text in China-ASEAN Exhibition Spoken
by Chinese Prime Minister Li Keqiang

Olivier Bailble · Son, Ji Yoon

The opening speech in the 10th anniversary of China-ASEAN Business and Investment Summit Conference has characters of both ritualistic ceremony's speech and public political speech considering the meeting of leaders of ASEAN allied powers. This kind of speech is a form of public mass communication which unilaterally delivers the position of a country or the opinion of it in front of lots of viewers in the oral form using given text, and should appeal to the emotion of audience inducing their compliment and favor, suggest the blueprint of future to them and lead positive reaction from them by way of expressing the intended political intentions.

The opening speech in this manuscript is equipped with the ritualistic and political components, amiable contents such as remembrance of past, compliment and celebration. And proper ideas and arrangement are suited to the purpose of the occasion in accordance with reporting an important policy presenting future situation and specific issues and persuading audience about them. In addition, Li Keqiang, who has strong ethos and inclination to 'progress', has an important role in amplifying the influence of speech. All the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expressions used in the speech are also balanced in view of ritualistic ceremony's speech and public political speech.

Key words : Rhetoric, Speech, Li Keqiang, China-ASEAN Exhibition

투 고 일 : 2015. 1. 10. / 심 사 일 : 2015. 1. 15. ~ 2015. 2. 15. / 게재확정일 : 2015. 2. 16.
